

황유진 조각가, 전라청년미술상 선정

23일까지 전주 기린미술관서 수상작 전시회 개최... 실험성 높은 작품 선보인 점 돋보여

전라청년미술상 운영위원회(회장 김동현)는 올해 제11회 전라청년미술상에 조각가 황유진 작가를 선정했다. 전라청년미술상은 지난 2011년부터 전북에서 활동하는 만 40세이하 유망한 청년작가를 선정하여 수상해 왔다.

이번에 운영위원회에서는 작가활동력, 작품 실험성, 지역미술계와 건전한 교류 등을 중심으로 선정하며, 수상자는 창작지원금과 초대개 인점을 후원하고 있다.

황유진 작가는 전통적 조각 제작방식을 버리고 재료와 기법의 다양한 변주안에서 실험성 높은 작품을 선보인 점이 돋보였다고 한다.

황유진 작가는 2012년 이전과 이후의 작업이 분리되는 양상을 보인다. 2012년 이후의 작업이 의도와 표상 면에서 부합하는 경향을 띤다. 다만 그의 모든 작품들은 근본적으로 실존의 문제와 맞닿아 있다. 때론 구체적이고 공간이 추상적이지만 그동안의 작업을 포괄적으로 묶으면 세상의 순리에 반하는 실존의 부조리, 불의와 고통, 두려움 등에 대해 의미를 부여한 것이었다.

작가의 작업에서 철학과 심리학의 관점으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죽음과 고통이다. 오래 전 행한 비탈기 부활 작업에서부터 비교적 가까운 시일에 선보인 코끼리 작업까지, 그의 작품 내면에 우리가 매일 느끼는 죽음과 고통이 어딘가 모르게 서성이고 있다.

그럼에도 다행인 건 작가의 작업에선 어디, 어느 곳에 서 있던 발걸음을 멈추지 않으려는 부단한 흐름을 감지할 수 있다는 점이다. 나아가 이전 작업들이 실존의 문제를 다루었다면, 작금에 이르면서 현존의 문제로 나아가는 여운이 없지 않다는 사실이다.

이번 작업은 아득고 청량하지 않은 공간이나, 일정하게 오롯이 트인 무대를 배경으로 고결함을 끌어안은 채 육신과 영혼, 물질적인 것과 비물질적인 것, 시간의 흐름과 공간의 흐름을



전주 기린미술관에서 17일부터 23일까지 올해 제11회 전라청년미술상에 선정된 조각가 황유진 작가 수상작 전시회가 열린다.

있는 고통을 불행과 죽음, 생과 사라는 공존의 명사들로 나타내고 있다. 자신을 육되는 고통에 대한 서사를 담아내고 있다.

새롭게 선보이는 최근작에서 전시장을 하나의 제단으로 설정하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간성이 섞인 거룩한 예배의 장소 그리고 존재와의 결별이 공존하는 공간을 보여주고 있다.

홍경한 미술평론가는 "이번 작업 역시 죽음의 본질이 삶의 존재론적 본질에서 어떤 식으로 해명될 수 있는가를 질문한다. 그리고 그가 명명한 공존의 공간은 그 두 본질을 작가 나름

의 존재의 방식으로 해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한다.

황유진 작가는 전북대학교 미술학과와 동 대학원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전주, 군산, 일본 등에서 10회의 개인전과 100여회의 그룹전에 참여한 활동적인 작가이다.

시상식은 전주의 기린미술관(관장 이현옥)에서 17일 오후 2시에 거행하고, 기린미술관 초대로 17일부터 23일까지 수상작 전시회를 가진다. 전시회는 매일 오후 6시까지이며, 월요일은 휴관이다. /김재훈 기자

한옥 자원 활용 공연 공모 선정

익산시, 국악 뮤지컬 '허균, 함라에 날아들다'
내년 함라 한옥마을서 16회 공연 계획

익산시가 한옥 자원을 활용하며 문화예술 진흥과 지역관광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시는 내년 한옥 자원 활용 야간 상설공연 운영사업 공모에 (사)세종전통예술진흥회의 함라한옥마을 한옥 자원을 활용한 국악 뮤지컬 '허균, 함라에 날아들다'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전북도문화관광재단이 주관하는 이번 사업은 지역의 한옥 자원을 활용해 독창적인 야간 상설공연 콘텐츠를 개발하고 상설 운영을 통해 문화예술 진흥과 지역관광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에는 국·도비 총 4억9천만원이 지원돼 지난달 16일부터 26일까지 서류심사와 인터뷰, 발표 등의 과정을 거쳐 익산, 전주, 고창, 남원, 임실 등 총 5개 시군의 예술단체가 선정됐다.

시는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9,800만원의 국·도비 지원을 받게 된다. 이를 통해 익산시와 (사)세종전통예술진흥회는 가(歌)·무(舞)·악(樂)이 융합된 국악 창작 뮤지컬 '허균, 함라에 날아들다'를 내년 함라 한옥마을에서 16회 공연할 계획이다.

'허균, 함라에 날아들다'는 홍길동을 지은 허균이 함라에서 유배 생활을 한 역사적인 사실을 기반으로 그려내는 작품이다. 허균이 함라의 맛과 멋에 취해 방탕한 생



활을 즐기던 가운데 가상 인물 길동을 만나 익산을 구경하고, 길동과 마을주민들이 이상적인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습 등을 그려낸 퓨전 국악 뮤지컬로 공연자와 관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연이다.

시 관계자는 "함라마을은 현재 등록문화재로 지정돼 돌담, 숙박과 체험을 할 수 있는 함라한옥체험단지가 조성돼있다"며 "앞으로 이러한 함라마을의 이야기와 함라한옥자원을 활용한 공연을 통해 쉬고, 보고, 먹고, 즐기는 여행지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함라마을은 허균이 유배를 와 우리나라 최초의 음식 품평서인 도문대작을 저술하고, 국창 임방울·김소희·박동진 등 문화예술인의 발길이 끊이지 않으며 한국 메세나 중심지였던 삼부자집이 있는 곳이다. /익산=이득훈 기자

완주향토예술문화회관, 연말 기획공연 유튜브 공개

완주향토예술문화회관(관장 이재정)에서 준비한 2021년 마지막 연말 기획공연으로 '송년 희망 콘서트'가 오는 22일 회관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다고 밝혔다.

'송년 희망 콘서트'는 라 스트라다의 팝페라와 금관 앙상블의 조화로 2021년 마지막을 기리는 화려한 금관 앙상블의 크리스마스 연말 분위기와 팝페라로 듣는 뮤지컬 명곡으로 희망찬 2022년을 선물하고자 한다.

이번 공연은 코로나19 특별방역지침으로 인해 무관중 사전녹화로 진행되며, 녹화 영상은 22일 16시 완주향토예술문화회관의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 될 예정이다.

이재정 관장은 "비록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으로 만나볼게 왜 아쉬움이 있지만 가족과 함께하는 2021년의 마지막에 좋은 공연 선물을 드릴 수 있어 기쁘다"며 "2022년에는 더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무대에 올려 공연장에서 관객분들과 만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완주향토예술문화회관은 2021년 공모사업과 자체 기획공연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무대에 올렸다.



자세한 문의는 완주향토예술문화회관 담당자 (063-291-7245)로 하면 된다. /정은성 기자

'전주시 고전 100권 함께 읽기' 참여자 170명 모집

성인뿐만 아니라 어린이·청소년까지 확대... 내년 1월 14곳 도서관서 운영

전주시는 오는 28일까지 '전주시 고전 100권 함께 읽기' 참여자 170명을 전주시립도서관 홈페이지(lib.jonju.go.kr)에서 모집한다.

'전주시 고전 100권 함께 읽기'는 시민 누구에게나 삶의 지침이 될 수 있는 고전을 선정해 5년 동안 100권을 함께 읽어 나가는 독서 운동으로, 지난 7월 성인 1기를 시작으로, 매년 1월과 7월에 새로운 기수가 출범한다.

다음 달 출범하는 이번 기수에는 성인뿐만 아니라 어린이와 청소년까지 확대된다. 참여자들은 매일 1회 1권씩 고전을 읽고 진행자와 함께하는 독서모임도 갖게 된다.

성인 2기의 경우 각 15명씩 △금암 △서신 △송천 △완산 △인후 △평화 등 6개 도서관에서 운영된다. 어린이 1기는 각 10명씩 △건지 △서신 △아중 △덕진품애작은 △책마루어린이 작은 등 5개 도서관에서, 청소년 1기는 각 10명씩 △꽃심 △삼천 △송천 등 3개 도서관에서 진행된다.

참여자에게는 1박 2일 독서캠프와 문화기행 등 도서관 행사 우선 참여권이 부여되며, 고전 독서일지 우수 독후감 시상과 문집 제작도 이뤄진다.

또 5년간 고전 100권 함께 읽기를 달성한 시

민에게는 도서관 명예의 전당에 현판이 부착된다.

이에 앞서 지난 7월 출범한 '전주시 고전 100권 함께 읽기' 성인 1기는 함께 읽기 6개월 90명과 혼자 고전을 읽고 홈페이지에 일지를 기록하는 혼자읽기만 155명이 모집된 바 있다.

최라기 전주시 책의도시인문교육본부장은 "동서고금을 초월해 보편적 가치를 인정받은 고전을 읽는 것이야말로 시민의 삶을 바꾸고 품격을 높이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한다"며 "'전주시 고전 100권 함께 읽기'를 통해 책이 삶이 되고 삶이 책이 되는 책의 도시 전주로 도약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